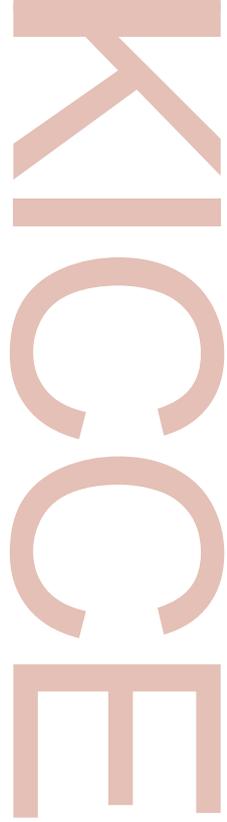


2017 연구개발적립금 01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아태지역국가들의 육아정책 모니터링 연구(I):

푸트라자야 선언문 실행과제를 중심으로

문무경 Mami Umeyahara 박상신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17 연구개발적립금 01

아태지역국가들의 육아정책 모니터링 연구(I): 푸트라자야 선언문 실행과제를 중심으로

문무경 Mami Umeyahara 박상신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머 리 말

최근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차원에서 유엔과 국제사회가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들(SDGs) 달성을 위한 이행 모니터링 및 실천전략 개발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말레이시아 정부와 유네스코 방콕 아태교육국, 유니세프, ARNEC의 공동주관으로 2016년 푸트라자야에서 제2차 아태지역 장관 육아정책포럼을 개최하여 '푸트라자야 선언문(Putrajaya Declaration)'을 채택하였다.

'푸트라자야 선언문'은 유네스코의 '만인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과 유엔아동권리헌장에 근거하여 '교육은 출생과 더불어 시작됨(Learning begins at birth)'을 재천명 하였다.

특히, 푸트라자야 선언문에서는 Education 2030을 위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 Target 4.2 달성을 위하여 아태지역의 우선적 실행과제로 초등학교 입학 직전 최소 1년의 무상교육 보장,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부처 간의 통합적 정책, 영유아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 취약계층 유아를 위한 포괄적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등의 9가지지를 선정, 명시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사업은 아태지역 국가들의 푸트라자야 선언문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실행과제별 이행 장애요인과 문제점 등을 규명하고자 수행되었다. 또한 우수 이행사례를 발굴하고 공통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아태지역 국가간의 협력 전략을 개발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사업은 유네스코 아태교육국과의 긴밀한 협력하에 공동으로 추진되었으며, 향후 2030년을 향하여 격년으로 발간 예정인 모니터링 보고서의 기본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아태지역 국가들의 관련 자료를 수집해 준 유네스코 아태교육국 담당자를 비롯하여 보고서 내용을 검토해 준 국내외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본 연구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아태지역 국가들의 이행 수준 및 개발협력 실천을 위한 유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본 연구사업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7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백선희**

차 례

국문 요약	1
I . Introduction	15
II . Overview of ECCE landscape in the Asia-Pacific	17
III . Action Points	22
1. Inclusive legislation, policies and programmes, esp. free and compulsory PPE	22
2. Multi-sectoral coordination of policies, strategies and programmes	26
3. Professionalisation of ECCE personnel	28
4. Inclusive approach to programmes, services and infrastructure	30
5. Increased government investment and PPP	31
6. Monitoring progress towards SDG 4.2 as part of SDG 4-Education 2030 coordination process	36
7. Comprehensive data collection, analysis and use	38
8. Advocacy	39
9. Regional framework and national roadmaps for SDG Target 4.2	45
IV . Conclusions	47
참고문헌	49

표 차례

〈표 1〉 Under-five mortality rate from 1990 to 2016(deaths per 1,000 live births)	18
〈표 2〉 Number of deaths of children under age 5 from 1990 to 2016	18
〈표 3〉 Compulsory and free provision of pre-primary education in Asia and the Pacific	24
〈표 4〉 National networks for early childhood	41

그림 차례

〔그림 1〕 Age group corresponding to "early childhood" in Asia and Pacific countries	17
〔그림 2〕 Stunting prevalence in 1990, 2000 and 2016	19
〔그림 3〕 Increase in pre-primary gross enrolment ratio from 2000 to 2015	20
〔그림 4〕 Adjusted net enrolment ratio in the last year of pre-primary education 2013-2016	21
〔그림 5〕 Government expenditure on pre-primary education as a percentage of GDP 2013-2015(%)	33
〔그림 6〕 Expenditure on pre-primary as a percentage of government expenditure on education 2013-2016(%)	33
〔그림 7〕 Evaluation of expenditure on pre-primary as a percentage of government expenditure on education	34

국문 요약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최근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차원에서 유엔과 국제사회가 채택한 17개 부문의 지속가능발전목표들(SDGs) 달성을 위한 이행 모니터링 및 실천 전략 개발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함.
- 이러한 맥락에서 푸트라자야 선언문 채택의 후속 조치로, 아태지역 국가들의 푸트라자야 선언문에 명시된 실행과제에 대한 이행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이행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음.
- 본 사업의 목적은 아태지역 국가들의 푸트라자야 선언문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실행과제별 이행 장애요인과 문제점 등을 규명하고 단계적인 이행 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을 평가하는데 있음.
 - 또한 우수 이행사례를 발굴하고 유사 또는 공통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아태지역 국가 간 협력전략을 개발하고자 함.

나. 연구내용

- 아태지역국가들의 푸트라자야 선언문 이행 수준 파악
 - 푸트라자야 선언문 9가지 실행지표별 이행 수준 분석
 - 초등학교 입학 직전 최소 1년의 무상교육 보장, 부처 간의 통합적 정책 접근, 교원 전문성 신장, 취약계층 유아를 위한 서비스 제공, ECCE에 대한 정부의 공적투자 증대, 영유아의 발달과 학습 성과 측정, 자료 수집과 활용 등.
- 푸트라자야 선언문 이행의 장애요인 규명 및 해결 방안 모색

- 푸트라자야 선언문 이행 우수 국가사례 발굴
- 푸트라자야 선언문 이행을 위한 국제기구(유네스코, 유니세프, ARNEC 등), 아태지역 국가들의 협력 전략 제시
- 2030년까지의 후속 모니터링 방안 제시

다. 연구방법

- 설문조사
 - 조사 대상: 푸트라자야 선언문을 채택한 아태지역 37개국
 - 조사 내용: 푸트라자야 선언문의 9가지 실행과제별 이행 현황
 - 조사 방법: 유네스코 아태교육국과 육아정책연구소가 국가별 이행 관련 조사지 공동 개발 및 유네스코 아태교육국에서 37개국 응답 자료 수합, 육아정책연구소가 자료 분석 (실제로 15개국 응답지 회수함)
- 집중 워크숍 개최
 - 개최 목적: 이행 모니터링 결과 분석 및 우수사례 선정, 협력전략 논의, 모니터링 보고서 발간 및 홍보 계획 협의 등.
 - 개최 방식: 유네스코 아태교육국과 육아정책연구소 사업팀의 2일간의 집중작업
 - 일정 및 장소: 2017년 11월 21-22일, 서울

2. 추진 배경

- 유네스코 본부는 2010년 러시아정부와 공동으로 192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EFA 목표 1의 영유아부문 목표 달성 평가 및 향후 방향을 모색하고자 세계 유아교육보육회의(World Conference on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을 개최함.

- 본 세계회의에서 '모스크바 성명서'(Moscow Framework for Action and Cooperation)를 발표함. 성명서의 주요 골자는 유아교육과 보육에의 정책적 노력 강화, 효과적인 영유아 서비스 전달 및 필요한 자원과 자원 확보 등임.
- 육아정책연구소는 모스크바 성명서의 후속 조치를 위하여 유네스코 아태교육국, 유니세프, ARNEC, 한국개발원과의 공동주최로 2013년 서울에서 '아태지역 장관 육아정책포럼'(Asia-Pacific Policy Forum on ECCE)을 개최함.
 - 아태지역 31개국의 대표단(21명의 장관 포함), 약 250여명이 참여
 - 본 1차 포럼은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실행 및 모니터링에 필요한 정보 교류와 대화를 지속할 수 있는 아태지역 국가들을 위한 논의의 장(場)을 처음으로 마련함(문무경.채송아, 2013).
- 말레이시아 정부와 유네스코 방콕 아태교육국, 유니세프, ARNEC의 공동주관으로 2016년 푸트라자야에서 제2차 아태지역 장관 육아정책포럼을 개최하여 '푸트라자야 선언문(Putrajaya Declaration)'을 채택함(UNESCO, 2016).
 - '푸트라자야 선언문'은 유네스코의 '만인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과 유엔아동권리헌장에 근거하여 '교육은 출생과 더불어 시작됨(Learning begins at birth)'을 재천명함.
 - 본 선언문에서는 평생학습과 국가발전에 있어서 영유아기의 중요성을 재강조하고 영유아기 서비스의 형평성과 질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투자, 법과 규정 설정, 커리큘럼, 질 관리 등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책무성을 강화할 것을 상기함.
- 특히, 푸트라자야 선언문에는 Education 2030을 위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 Target 4.2 달성을 위하여 아태지역의 우선적 실행과제를 명시함.
 - 영유아 부문 목표인 SDG Target 4.2는 '취학 전 모든 남아와 여아에

게 양질의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초등학교 교육을 준비하는 것'임.

- 본 선언문에서는 우선적인 실행과제로 초등학교 입학 직전 최소 1년의 무상교육 보장,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부처 간의 통합적 정책, 영유아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 취약계층 유아를 위한 포괄적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등의 9가지를 선정함.

3. 푸트라자야 선언문 9가지 실행과제

가. 초등학교 직전 최소한 1년의 양질의 무상교육 실현

(특히, 가장 취약소외계층 유아에 각별한 관심을 두어 법과 정책, 프로그램 개발)

- 세계 인권 선언(1948)에서 교육을 인간의 기본권으로 천명하며, 최소 초등교육 및 결정적 발달기만이라도 무상 및 의무교육을 실시할 것(제 26조)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음.
- SDG 목표 4.2에서 알 수 있듯이, 학습의 연속성과 관련하여 유아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증대
 - 지속가능한 발달과 웰빙(well-being), 양질의 유아교육에 대한 접근성 확대 및 형평성 제고가 중요한 안건으로 부각됨.
- 취학 전 교육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 전개
 - 법령정비, 정책수립, 사회적 인식 전환, 재정적 지원 및 무상교육 실현 등이 있으며, 이미 일부 국가에서는 무상을 전제로 의무 또는 선택적 교육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음(UNESCO, 2015, p. 63).
- 이에, 첫 번째 실행과제는 최소 일 년 이상의 취학 전 교육을 법적 근거를 수반한 무상 및 의무교육의 형태로 유아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아태지역국가들이 선보인 노력의 척도가 될 수 있음.

□ 아태지역의 경우, 의무교육 시작 및 대상 연령이 국가별로 현저한 차이를 나타냄.

- 10개국 중 최소 일 년 이상의 취학 전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실시 중. 다수의 국가(46개국 중 24개국)가 의무교육 시작 연령을 6세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초등교육의 시작 시점과 일치하는 경향을 보임.

□ 국가 수준의 ECCE 정책 수립, 해당 정책의 법제화 및 교육과정 기틀 마련은 양질의 ECCE 서비스에 대한 공공의 접근성 강화 방안 설정에 혁신적 돌파구를 마련

- 취약소외계층에 대한 직접적 지원의 토대 형성

나. 건강, 보호, 위생, 정의, 교육 등을 담당하는 여러 부처 간의 통합적인 정책과 전략, 양질의 프로그램 실행

□ 아태지역 내 많은 국가들이 다양한 방식(부처 간 공동 회의, 각종 위원회 설립 및 운영 등)을 통해 유관 부처 및 기관들 간 협력 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음.

- 많은 국가에서 한 개 부처(교육부)가 협력 기제를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부탄, 쿡 아일랜드, 카자흐스탄, 키리바티 및 몰디브 등)하고 있으며 타 부처(여성아동부, 방글라데시)나 대통령이 선도하는 국가도 있음.
- 필리핀의 경우 ECCE를 위한 국가 위원회를 설립하여 운영: 매년 ECCD 위원회 구성원들과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으며, Philippines Amusement and Game Corporation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음.

□ 조사대상 국가 중 6개국에서 통합 구축 주관기관에 대한 정규 예산 책정을 실시해온 것으로 파악됨.

□ 대부분의 국가에서 예산 개발, 계획 및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 민간 영역을 포함시켜온 것으로 나타남.

- 자원 지원, 관련연구 제공, 기술적 보조, 정부 주도 정책 결정 토론회 참석과 같은 방식으로 참여
- 말레이시아의 경우 민간 영역이 정책 개발 및 계획 단계에 참여함. 한 예로, 교육부가 주최하는 회의 및 토론에 민간 영역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취학 전 교육의 청사진 구상에 적극적으로 개입

다. 지위와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교직원 전문성 향상

- 한국에서는 농어촌 지역에 근무하는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지원금 및 주거 지원 혜택을 제공함.
 - 사립유치원 교사 및 누리과정 운영 보육교사 대상으로 보조금 지급. 2012년에 유치원 보직 체계 내 수석교사 개념을 도입함.
- 미얀마는 정책 전략 4(Policy Strategy 4)를 통해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양질의 ECCE 교사 양성 체계를 구축
 - 경력개발부터 자격증 발급, 현직 교사 보수교육까지 유기적이고 유연한 체계 구축을 통해 전문 인력의 재배치, 보조교사나 자원봉사자 전문성 제고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려는 노력을 시도함.
- 싱가포르 역시 유능한 ECCE 전문가 양성 및 유지와 관련 혁신적이고 성공적인 사례를 제공하고 있음.
 - 싱가포르 정부는 캠페인 개최, 지역사회 연계 활동 주최, 다양한 관계자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실무자 능력 제고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카자흐스탄의 경우, 시골 지역 내 ECCE 교사 처우 개선에 큰 주안점을 두어 정책 수립 진행 중임.
 - 농촌지역 교사의 급여 수준이 도시지역에 비해 25% 가량 높은 수준임.
 - 더욱이, 한시적 경제적 보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다양한 수준의 사회적 지원을 추가 제공할 방안을 모색 중임.

- 상당수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주목하는 사실은, 유아의 총체적 학습 및 발달 진행 강화 방안으로 놀이를 통한 학습이 제시되고 있음: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교육학적 접근방식의 맥락에서 놀이를 이해하려는 시도를 선보임.

라. 포괄적이고 접근가능한 양질의 통합된 ECCE 프로그램과 서비스

- 약 26개국(76%)에서 포괄적이고 접근 가능한 양질의 통합된 프로그램, 서비스 또는 하부구조를 계획·실행 중인 것으로 나타남.
- 조사 대상의 대부분 국가에서 장애를 가진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ECCE 프로그램과 정책을 시행 중임.
- 우즈베키스탄과 같이 접근성이 중요한 이슈인 국가에서는 원거리 및 비도시지역 유아를 대상으로 대체 프로그램(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 운영
- 태평양 지역 내 일부 국가들(쿡 아일랜드, 피지 및 몰디브 등) 역시 원거리 및 격리된 도서 지역의 유아를 대상으로, 혁신적인 ECCE 서비스 제공 방식을 개발·운영 중임.
 - 미디어를 활용한 캠페인, 초등학교에 인접한 지역사회 기반 유치원 운영 및 라디오 기반 프로그램 가동

마. ECCE에 대한 정부투자 증대

- ECCE 프로그램의 질과 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공적 자금 지원은 양질의 유아교육에 대한 접근의 형평성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기제임(OECD, 2017).
 - 규정 및 기준을 제정하고 운영하는 일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자금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과업도 성공적인 ECCE 체계 구축의 핵심 변수로 작용

- 양질의 ECCE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 GDP의 1%, 공교육 지출의 10% 이상의 재정 확보가 요구됨(Bennett, 2008).
- 정부의 교육비용 지출 행태를 살펴보면, 아태지역 국가 중 6개국(북아일랜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디브, 몽골 및 베트남)이 전체 교육관련 지출 비용의 10%이상을 초등교육 이전 교육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지표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축적해 온 국가들의 경우, 정부의 공교육 지출 대비 초등교육 이전 교육 투자 비율이 현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이는 유아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우선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진 것임.

□ 정부와 NGO간의 효율적 파트너십 구축이 성공적인 ECCE 투자 확대로 연계된 사례가 다수의 국가에서 보고되고 있음.

- 부탄의 경우, Save the Children과 UNICEF의 기술 및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교육부가 2000년대 초반 이래로 ECCD 센터 및 부모 교육 프로그램 접근성을 확대함.

□ 정부의 지속적 기여, 적극적 선도 자세 유지, 재정지원 확립의 세 가지 요소는 양질의 ECCE 프로그램에 대한 공정한 접근성 강화의 핵심 역량임.

- 국가 또는 NGO의 이해 당사자들 간 유기적 연결망 확립은 정부 수준에서 진행할 수 있는 양질의 ECCE 체계 완성의 중요한 초석으로 작용가능.

바. 국가 및 지역수준에서 SDG 4.2 이행 모니터링

□ SDG 목표 4.2는 유아의 발달 성과를 평생학습 및 인간 발달의 기초로 전제함.

- SDG 4.2 에서 학교준비도를 신체적·인지적·사회정서적·언어적 발달 영역 전체를 아우르는 총체적 방식으로 개념화하고 있음.

- 현재 유아발달 결과 모니터링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 통합 측정 지표는 MICS ECDI(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s Early Childhood Development Index)임.
 - 36-59 월령에 해당하는 유아를 둔 부모에게 10개 문항을 제시하는 가구대상 조사 지표로서, 4개 영역을 포함 (문해와 수해, 신체, 사회정서 및 학습 영역).
 - 4개 하위 영역 중 3개 이상 하위 영역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유아의 경우 정상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함.
 - MICS ECDI 지표는 수집된 자료를 유아의 인구학 및 사회문화적 배경(성, 경제 수준, 거주 지역, 인종 등), 가정환경, 그리고 건강 및 영양 상태와 결부시켜 분석함으로써 경험적 기반에 근거한 정책 수립 및 운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음.
 - MICS EDI 지표의 경우, 5세 유아의 배제, 문·수해에 강조를 둔 10개 문항으로 구성된 응답에의 의존, 일부 문항의 과도한 진보적 성격, 그리고 유아를 직접 관찰한 결과가 아닌 부모 보고 방식에 의해 측정된다는 측면에서 한계점이 있음(UNESCO, 2017).

사. 자료 수집, 분석, 활용 강화

- 응답 국가 중 13개국에서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를 중심으로 ECCE관련 정보 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함.
 - 태국의 경우 4개의 주관부서(Ministry of Interior, The Bureau of Registration Administration, Ministry of Digital Economy and Society, and National Statistics Office)와 3개의 협력주체(Ministry of Interior, Ministry of Education, and Ministry of Public Health)의 공동대응을 기반으로 유아 데이터 베이스 체계 (Early Childhood Database) 구축을 진행 중임.
- 유아기가 갖는 발달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으로 각국은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지표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축적하고 그 경향의 추

이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보임.

- 이는 사회적 인식의 촉구, 공조 체계 설립 방안 마련, 새로운 관련 기구 창설 및 정보체계를 위한 부처 간 협력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음.
- 일부 국가(Tonga)의 경우 연 단위 데이터 수집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분석 기틀 마련 미비라는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일부 국가의 경우 독자적 유아 발달 측정지표를 도입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카자흐스탄의 경우 State Program of Education and Science Development(2016-2019)의 일환으로 유아의 초기 학습 결과 측정 도구를 개발 중임. 첫 측정을 2017년 내 진행할 것으로 계획 중이며, 2019년경 두 번째 측정을 실시할 계획임.
- 한국의 경우, 국가수준은 아니나 일부 지역수준에서 측정도구를 보유하고 있음.

아. 주요 관계자의 인식 증진

□ ECCE 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체계적인 연구결과 축적과 지속된 옹호를 유지하는 밑거름으로 작용하여 관련 이해 당사자들에게 발달 선 상에서 유아기가 차지하는 결정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대시키는 촉매제역할을 수행함.

- 1990년 제창된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EFA)” 등장 당시, “Learning begins at birth”가 다소 생소한 개념으로 이해되어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되던 당시 분위기와 비교 혁신적 인식 전환의 단면으로 볼 수 있음.
- 모든 유아를 대상으로 통합된 양질의 ECCE 교육 제공이 현실화 되어 잠재된 발전가능성 발현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제창된 가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옹호하려는 노력이 끊임없이 요구됨.

- 지역적 수준에서의, Asia-Pacific Regional Network for Early Childhood (ARNEC)의 통합된 유아 정책 및 서비스 제공 노력은 괄목할만한 성과를 나타냄.
 - 2008년 창설 이후, 창설 지원기구(UNESCO, UNICEF, and Plan International)의 지속적 지원뿐만 아니라 새롭게 합류한 주요 비영리 국제기구들(Open Society Foundations, Save the Children, and Childfund)의 합동 지원을 통해 양질의 ECCE 정보 체계 구축을 위한 역동적 네트워크 형성에 크게 기여함.
- 지역 내 하위 권역별 수준에서 살펴보면,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국가들의 협력 체계 구축 노력이 매우 적극적임.
 - 동남아시아 11개국 교육부장관으로 구성된 SEAMEO(Southeast Asian Ministers of Education Organization)는, 2015년에서 2030년 내 주요 7개 우선 협력 제공 부문의 하나로, 2030년까지 보편적인 초등교육 이전 교육 제공을 협의함.

자. 국가수준 로드맵과 SDG4.2 달성을 위한 아태지역의 기본틀 개발

- 한국에서 개최된 2015 세계 교육 포럼을 통해 UNESCO는 SDG4-교육 2030관련 선도 및 협력 주체로 재탄생
 - 이에 아태지역국가들의 SDGs 채택이 이어지고, UN 지역 협력 기구 (UN Regional Coordination Mechanism, RCM) 산하 권역별 이행수준 조사의 일환으로 Thematic Working Group(TWG)이 UNESCO와 UNICEF의 공동주관으로 개최됨.
- 교육 2030 TWG는 선도체인 EFA TWG와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SDG 4-교육 2030뿐만 아니라 교육과 관련된 SDGs 5, 13 및 16과 연계하여 굳건한 지역적 협력 기반 강화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
 - TWG on Education 2030+은 다양한 기관 및 기구의 참여로 협력 기반

강화 추세임: ILO, IOM, UNDP, ESCAP, UNESCO, UNICEF, WHO, ADB, World Bank, SEAMEO, Plan International, ARNEC, ASPBAE, Action Aid, Education International, ATD Fourth World and SIL International

4. 결론 및 제언

- 본 연구에서 살펴 본 15개국의 응답 결과를 종합하면, ECCE 정책과 프로그램의 형평성 및 질 제고 측면에서 지속적인 발전이 파악됨.
 - 국가적 수준의 문서화된 ECCE 정책이 정책 및 프로그램 운영의 선행 조건이 될 수는 있으나, 전략적 계획에 기반을 둔 구체적 행동 계획 부재 시 정책 기대수준을 만족시키기에는 역부족임.
- 유아기 관련 새로운 SDG 목표 수립에 따라 아태지역 국가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음.
 - 본 연구에서 발견된 이행 진척 정도도 하위지역 및 국가별로 수준 및 속도의 상당한 차이가 보고됨.
 - 정책 및 프로그램 이행 과정에서 봉착하는 장애 양상도 국가 별로 상이함.
 - 양질의 ECCE 프로그램에 대한 형평성 있는 접근을 강화하고 당면한 어려움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유사 환경 내 다른 국가의 혁신적 성공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2017 연구개발적립금사업 01

아태지역 국가들의 육아정책 모니터링 연구(I)

-푸트라자야 선언문 실행과제를 중심으로-

발행일 2017년 12월

발행인 백선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3층, 4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http://www.kicce.re.kr>

인쇄처 킨코스코리아(주) 02) 3486-6791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87952-34-3 93330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orea
Institute of
ChildCare and Education



9 791187 952343 93330
ISBN 979-11-87952-34-3